

## 초등학생에서 집단따돌림의 유병률과 이와 관련된 정신병리현상\*

김영신<sup>1)†</sup> · 고윤주<sup>2)</sup> · 노주선<sup>1)</sup> · 박민숙<sup>3)</sup> · 손석한<sup>1)</sup>  
서동향<sup>1)</sup> · 김세주<sup>1)</sup> · 최낙경<sup>1)</sup> · 홍상의<sup>1)</sup>

### School Bullying and Related Psychopathology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Young Shin Kim, M.D., M.P.H.,<sup>1)†</sup> Yun-Joo Koh, Ph.D.,<sup>2)</sup> Joo Sun Noh, M.A.,<sup>1)</sup>  
Min Sook Park, M.D.,<sup>3)</sup> Suk Han Sohn, M.D.,<sup>1)</sup> Dong Hang Suh, M.D.,<sup>1)</sup>  
Se Joo Kim, M.D.,<sup>1)</sup> Nakkyoung Choi, M.D.,<sup>1)</sup> Sanggeui Hong, M.D.<sup>1)</sup>

#### 국문 초록

##### 연구목적 :

학교폭력의 가장 혼란 형태인 집단따돌림은 피해아동 및 가해아동 모두에서 다양한 행동, 정서 및 사회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내의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따돌림의 유병률과 집단따돌림과 관련되어 아동에게 나타나는 정신병리 현상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 방법 :

안양지역의 두 초등학교에서 무선으로 선출된 두 학급의 4, 5, 6학년 학생들이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었다. 학생들은 한국형 또래지명설문지(K-PNI)를 완성하였고, 교사 및 부모는 ADHD Rating Scale (ARS)과 Conners 척도를 완성하였으며 부모들은 추가로 아동행동조사표를 완성하였다. 통계방법으로는 기술적 통계, 다중회귀분석 및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 결과 :

총 532명의 학생들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집단따돌림의 피해자, 가해자 및 피해자 겸 가해자의 유병률은 각각 48%, 45%, 30%로 나타났다. 심한 집단따돌림의 유병률은 2.1~4.1% 사이였다. 집단따돌림의 피해아동과 피해자 겸 가해아동들은 교사와 부모에 의해 부주의하고 수동적이며 사회적으로 미성

접수일자 : 2001년 4월 2일

심사완료 : 2001년 8월 2일

\*본 논문의 요지는 2000년 5월 13일 대한소아청소년정신과 춘계학술대회에서 구연발표가 되었으며 2000년 10월 24일 47<sup>th</sup> Annual Meeting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New York City, U.S.A.)에서 포스터 발표 되었음.

\*본 논문은 1998년 일송재단 연구비와 2000년 연정희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sup>1)</sup>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성심병원 정신과 Department of Psychiatry, School of Medicine, Hallym University, Seoul

<sup>2)</sup>연세대학교 아동학과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Seoul

<sup>3)</sup>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Department of Psychiatr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sup>†</sup>Corresponding author

숙하고 공격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학년이 올라 갈수록 피해자가 되는 경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 아동은 행동문제와 정서불안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남아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결 론 :

집단따돌림은 한국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집단따돌림의 경험을 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더 많은 정신병리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정신병리와 집단따돌림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집단따돌림을 경험한 아동에 대한 추적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중심 단어 :** 집단따돌림 · 유병률 · 정신병리 · 초등학교.

## 서 론

집단따돌림(속칭, 왕따)은 언어적 그리고 비언어적인 폭력을 수단으로 한 동료들 간의 적극적 소외 현상이다. 집단따돌림은 최근 사회에서 많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상이지만,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나 만연되어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자료는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집단따돌림의 피해자나 가해자들이 어떤 정신병리학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재 기준의 집단 따돌림 및 학교폭력의 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전국 57개 초·중·고교생 6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설문에 응답한 학생 중 24.2%가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전국 초·중·고교생 천 6백 여명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절반 정도인 48.1%가 '친구를 따돌린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들 중 30% 정도는 '지난 6개월 사이 1번 또는 2번 이상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sup>1)</sup>

외국에서도 집단따돌림에 관한 연구가 1980년대부터 활발히 진행되어오고 있다. 미국에서 실시된 연구 결과들에서는 대략 10% 정도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교우들로부터 신체 및 언어적 폭력, 놀림과 따돌림 등의 피해를 정기적으로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3)</sup>

William 등<sup>4)</sup>이 시행한 영국의 한 인터뷰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27%가 교우들의 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중 10%는 주 일회 이상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영국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연구에서는 가해학생이 11%, 피해학생이 20% 그리고 두 가지 모두에 연루된 학생이

18%였다.<sup>5)</sup> 노르웨이의 초등학생과 중학생 연구에서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9% 그리고 가해자는 7%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sup>6)</sup> 다른 상황에서 다른 기준으로 조사된 결과들을 종합하기는 어려우나, 외국의 경우 대략 10~20% 정도가 정기적으로 학교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담 요청자들 대상으로 조사한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집단 따돌림이 상담의 주요 원인을 차지하며 정신적인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8년 청소년 폭력예방재단에 접수된 상담요청자 342명 중 집단따돌림과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한 학생이 148명으로 전체 상담 요청자의 43.3%에 이르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7)</sup> 또한 대검찰청에서 운영하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추진본부에서 1998년 접수한 사례들 중에 집단 따돌림과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174건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자살을 기도한 적이 있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학생들도 있다는 보고가 있다.<sup>8)</sup>

이러한 조사와 연구 결과들을 통하여 볼 때 현재 국내의 학교 폭력 및 집단 따돌림 현상이 상당히 만연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연구들마다 집단따돌림 현상에 대한 정의가 일치되지 않고 조사 방법 또한 다양하여,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자료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첫번째 목적은 초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집단따돌림의 유병율을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집단따돌림과 관련된 학교 폭력을 측정하는 방법 중, 지금까지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있는 방법은 본인의 자가보고나 교사의 보고보다는 또

래들의 지명에 의한 방법이었다.<sup>5)</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또래지명 설문지(Korean-Peer Nomination Inventory : 이하 K-PNI)를 사용하여 집단 따돌림의 피해자 및 가해자들에 대한 유병률과, 아동의 정신 상태를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아동의 보호자와 교사의 보고를 통해 아동의 정신병리를 조사를 하고자 한다.

## 방 법

### 1. 연구 대상

안양 지역 내에서 무선으로 선정된 3개의 초등학교 중, 학교장의 동의를 얻은 2개의 초등학교가 연구 대상 학교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학교의 4, 5, 6학년 중에서 각각 두 학급씩을 무선으로 선정하여 학급 전원이 연구 대상이 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아동의 수는 총 532명이었다.

### 2. 설문 조사

연구원의 지도 및 보조 하에 대상 아동들에게 K-PNI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를 시행한 연구원들은 아동학 및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들로서 조사 실시과정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았다. K-PNI는 익명으로 시행하여 연구대상의 답변이 안전하게 비밀이 보장되어 답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연구대상 아동의 부모들과 교사들은 부모 및 교사용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척도(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ADHD) Rating Scale : 이하 ARS)와 코너 척도(Conners scale for parents and teachers)를, 그리고 추가로 부모들은 아동행동조사표(Korean-Child Behavior Checklist : 이하 K-CBCL)를 시행하였다.

### 3. 평가 도구

#### 1) K-PNI

이 설문지는 특정 행동에 적합한 동료의 이름을 묻는 내용으로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혹은 놀림 당하는 행동 및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의 이름을 적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Perry 등(1988)이 사용한 설문지를 번안하고 한국 아동에서 좀더 특성적으로 나타나는 문제행동 현상에 대한 질문을 추가한 것으로 김영신 등<sup>7)</sup>에 의해 검증된 것이다. 본 설문지는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에 해당하는 아동의 이름을 숫자의 제한 없이 쓰도록 되어있다. 30개의 질문 항목 중 12문항은 피해 아동에 대한 질문이며 7문항은 가해 아동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11문항은 중립적인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2개의 피해 아동에 관한 질문은 피해의 유형에 따라서 다시 3문항의 소외형, 4문항의 언어적 폭력형, 2문항의 신체적 폭력형 그리고 3문항의 강압형 피해의 4가지 유형으로 세분되어 있다. K-PNI는 또래 아동들이 자신의 반에서 집단 따돌림의 경험을 하고 있는 같은 반 급우들의 이름을 제한 없이 적게 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집단따돌림의 피해 및 가해아동을 구분해내는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K-PNI를 이용하여 단순히 일방적인 진술이나 개인적인 보고에 기초하기보다는 학급을 하나의 역동적인 집단으로 보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적극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집단 따돌림의 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 2) ARS

이 척도는 DSM-IV의 ADHD 진단기준으로 구성된 모두 1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령기 아동의 ADHD 증상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완성하는데 5분 이하가 소요되며 행동의 십각도에 따라 0에서 3점 사이의 점수가 주어진다. 2점 이상의 점수는 아동의 발달 단계에 비하여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 된다. 이 척도는 ADHD 아동을 학습장애 아동과 정상아동과 쉽게 구분하여 주며 과잉행동이 동반된 ADHD 아동과 동반되지 않은 ADHD 아동을 구분하여 준다. 이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미국의 여러 연구에서 잘 증명되어 있으며<sup>8)</sup> 한국 아동에서의 신뢰도, 타당도 및 규준자료 등은 노주선 등<sup>9)</sup>에 의해 검증 된 것이다.

#### 3) Conners rating scale for teachers and parents

이 척도는 3세에서 17세 사이의 아동을 대상으로 과잉행동과 문제행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척도로서 높은 타당도와 신뢰도는 미국의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어 왔다.<sup>10)</sup> 부모척도는 48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동의 십각도에 따라 0에서 3점으로 표시하게 되어있다. 부모척도는 행동 문제, 학습 문제, 정신신체 문제, 충동 - 과잉 행동 문제와 불안 문제의 5개의 소척도를 가지고 있다. 교사용 척도는 2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역시 같은 방식으로 행동을 평

가하도록 되어있다. 교사척도는 행동 문제, 과잉행동 척도와 집중장애 - 피동성 척도의 3가지 소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와 교사용 척도 모두 과잉행동 지표를 가지고 있는데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잉행동 지표는 각 부모와 교사용 척도의 동일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정과 학교에서의 아동의 행동을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국어판 척도의 신뢰도, 타당도 및 규준자료는 노주선 등에 의해 검증, 발표되었다.<sup>11)</sup>

#### 4) K-CBCL

Archenback에 의해 개발된 CBCL은 홍강의 등<sup>12)</sup>에 의하여 한국어판을 위한 개발 및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다. K-CBCL은 사회능력과 문제행동의 2가지 척도로 나뉘어져 있으며 문제행동 척도는 공격성, 사회적 위축, 신체 증상, 정서 불안정, 강박 - 우울, 과잉 행동과 성문제, 정신병의 8개 문제 중후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은 0에서 2점 척도로 평가하게 되어있다.

#### 4. 자료 분석 방법

K-PNI의 각 문항에서 지명된 아동 이름의 빈도수는 반 학급 아동의 전체 숫자로 나누어지고 해당 하위척도로 합산되어 평균점수로 제시되었다. 집단따돌림의 유병률 평가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하위척도의 합산과정에서 본 설문지의 요인분석 상 변별력이 떨어지는 두 문항을 제외하여 언어폭력형 3문항과 가해자 6문항으로 합산하였다. 각 해당 하위척도에서 중앙값을 초과한 아동은 집단따돌림의 피해 및 가해아동으로 구분되어졌다. 또한 각 반에서 10% 이상의 또래들로부터 지명된 아동은 심한 집단따돌림의 피해 및 가해자로 정의되었다. 집단따돌림 피해자 및 가해자의 유병률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한다.

$$\text{집단따돌림 피해자의 유병율} (\%) =$$

$$\frac{\text{전체 집단따돌림 피해자의 수}}{\text{전체 연구대상자의 수}} \times 100$$

아동의 집단따돌림과 정신병리의 관계는 다중회귀분석과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 결 과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 Demographic data of the subjects**

	Number of subjects	Percentage of subjects
<b>School(N=532)</b>		
A	263	49.4%
B	269	50.6%
<b>Grade(N=532)</b>		
4th	176	33.1%
5th	175	32.9%
6th	181	34.0%
<b>Sex(N=532)</b>		
Male	258	48.5%
Female	274	51.5%
<b>Family(N=435)</b>		
Extended family	42	9.7%
Intact family	393	90.3%
<b>Parental education</b>		
<b>Mother(N=414)</b>		
≤ 12 years	283	68.4%
> 12 years	131	31.6%
<b>Father(N=423)</b>		
≤ 12 years	194	45.9%
> 12 years	229	54.1%
<b>Parental Job</b>		
<b>Mother(N=300)</b>		
Housewife	144	48.0%
Non-professional	138	46.0%
Professional	18	6.0%
<b>Father(N=403)</b>		
Unemployed	7	1.7%
Non-professional	269	66.8%
Professional	127	31.5%
<b>Socioeconomic status(N=429)</b>		
High	0	0.0%
Middle	404	94.2%
Low	25	5.8%

표 1에 요약되어 있다(표 1). 두 학교의 학생 구성비, 학년비 및 성비는 유사하였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결손 가정에서 자라고 있었다. 연구대상의 부모 중 어머니는 31.6%, 아버지는 54.1%가 대학을 졸업하였다. 반 이상의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의 아버지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 중 31.5%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연구대상의 부모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경제 사회적 지위를 중등도로 평가하였다.

K-PNI를 이용하여 2개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을

**Table 2. Prevalence of victims and perpetrators of school bullying(N=531)**

	Number of subjects(M/F)	% of subjects(M/F)
<b>Definition by median value</b>		
<b>Victim</b>		
Total	257(148/109)*	48.3%(27.8%/20.5%)
Exclusion	236(120/116)	44.4%(22.6%/21.8%)
Verbal abuse	157(83/74)	29.5%(15.6%/13.9%)
Physical abuse	145(96/49)*	27.3%(18.0%/9.2%)
Being forced	232(142/90)*	43.6%(26.7%/16.9%)
Perpetrator	240(153/87)*	45.1%(28.4%/16.4%)
Victim & perpetrator	160(102/58)*	30.1%(19.2%/10.9%)
<b>Definition by 10% of nomination</b>		
<b>Victim</b>		
Total	17(9/8)	3.2%(1.7%/1.5%)
Exclusion	19(10/9)	3.6%(1.9%/1.7%)
Verbal abuse	19(10/9)	3.6%(1.9%/1.7%)
Physical abuse	14(9/5)	2.6%(1.7%/0.9%)
Being forced	11(6/5)	2.1%(1.1%/0.9%)
Perpetrator	22(20/2)*	4.1%(3.8%/0.4%)
Victim & perpetrator	1(1/0)	0.2%(0.2%/0.0%)

\* : Sex differenc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 two-tailed test), M : male, F : female

대상으로 조사한 집단따돌림의 유병률은 표2에 요약되어 있다(표 2). 48.3%의 아동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집단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으며 가해 아동은 45.1%, 피해자이며 동시에 가해자인 아동은 30.1%로 나타났다. 집단따돌림은 여아보다 남아에서 유의하게 많이 나타났으며 각 피해의 유형별로 보면 소외형과 언어적 폭력형에서는 남녀간의 차이가 없는 반면 신체적 폭력형과 강압형에서는 남아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K-PNI에서 10% 이상의 급우들이 반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지명한 아동들은 0.2~4.1%로 나타났으며 가해자를 제외하고는 남녀간에 유의한 성 차이가 없었다.

부모들이 시행한 K-CBCL과 부모 및 교사들이 시행한 Conners Scale 및 ARS를 이용하여 조사한 집단따돌림의 피해 및 가해 아동과 정신병리의 관계는 표 3에 요약되어 있다(표 3). 집단따돌림의 피해 아동들은 저학년에서 많았으며 정상 아동들에 비해 교사는 집중능력에 문제가 있거나 수동적이라고 평가하고 부모는 사회적으로 미성숙하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가해 아동들은 남아가 많았고 교사들은 행동문제가, 부모들은 정서

적 불안정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인 아동은 남아에서 많았으며 교사들은 집중문제와 수동성이, 부모들은 공격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10% 이상의 급우들의 지명을 받은 심한 집단따돌림의 피해아동은 부모들의 평가에서 충동성이 높고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것으로 나왔으며 가해아동은 교사 평가에서 행동문제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고 칠

K-PNI를 이용한 집단따돌림의 유병률 조사결과를 보면,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집단따돌림이 전체 아동의 반 가까이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준의 유병률은 외국의 경우에 비해 2~4배 이상 높은 것이며 국내의 선행 자가설문조사보다 높거나 비슷한 정도이다. 피해 유형 중 소외형과 언어적 폭력형의 소극적 형태에서 집단따돌림 현상은 성별의 차이 없이 나타나나 신체적 폭력형과 강압형과 같은 적극적 집단따돌림 현상은 남아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피해 및 가해 아동들도 남아에서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별의 차이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 좀더 적극적인 형태의 집단따돌림의 피해 대상 및 가해자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2차적으로 반 급우들의 10% 이상에서 지명된 아동들을 조사하여 심한 집단따돌림의 피해 및 가해아동의 유병률을 조사하였다. 심한 따돌림의 경우 가해 아동을 제외한 피해아동, 유형별 피해 아동 및 피해 겸 가해 아동의 유병률은 성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유병률은 대체로 2~4%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병률은 Perry 등에 의해 보고된 10%의 유병률보다 훨씬 낮은 유병률이나 심한 따돌림의 경우 성별의 차이가 없는 것은 외국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sup>5)</sup> 이러한 집단따돌림의 유병률의 차이는 비 정규적이고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일과적인 집단따돌림은 외국에 비해 국내 아동에서 그 정도가 훨씬 높으나, 심하고 정규적으로 집단따돌림에 관계된 아동의 수는 외국에 비해 적은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뒤에서 언급할 K-PNI의 적용 방식의 차이에 의한 유병률의 차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돌림을 포함한 학교 폭력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한 외국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면, 많은 연구들이 피해자들의 특성을 밝히려는 시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Table 3. Association between psychopathology and school bullying**

	Variable	OR	95% CI	p
Definition by median value				
Victim	Grade	0.63	0.48 ~ 0.83	0.001
	Connors(teacher) : inattention-passivity	1.64	1.25 ~ 2.14	0.000
	K-CBCL : social immaturity	1.03	1.00 ~ 1.05	0.029
Perpetrator	Sex	0.56	0.35 ~ 0.90	0.017
	Connors(teacher) : conduct	2.41	1.75 ~ 3.34	0.000
	Connors (parents) : emotional instability	1.03	1.01 ~ 1.04	0.000
Victim & perpetrator	Grade	0.52	0.38 ~ 0.73	0.000
	Connors(teacher) : inattention-passivity	0.46	0.29 ~ 0.73	0.001
	K-CBCL : aggression	1.06	1.03 ~ 1.09	0.000
Definition by 10% of peer nomination				
Victim	Connors(parent) : impulsivity	1.75	1.00 ~ 3.06	0.048
	K - CBCL : social immaturity	1.17	1.07 ~ 1.27	0.000
Perpetrator	Connors(teacher) : conduct	3.44	2.00 ~ 6.05	0.000

Multiple logistic regression(forward with wald test) was performed

Variables that were significant in multiple regression were entered in the equation in the ascending order of R<sup>2</sup>

Victim-perpetrator in the definition by 10% of peer nomination was not included in the table because of low frequency

OR : Odds Ratio, CI : Confidence Interval, K - CBCL : Korean-Child Behavior Checklist

있다. 이는 동일한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상황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피해자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sup>3)13)</sup> 또래들로부터 따돌림이나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심리적 특성들을 살펴보면, 자기 방어 능력이 떨어지고, 유우미가 없으면, 자신감과 자존감이 낮고, 비효율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거나 순종적이고, 자신의 소유물을 쉽게 포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13~15)</sup> 이러한 성격적 특성들은 가해자들이 확실한 가해의 보상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즉, 울음, 복종 같은 피해자의 행위가 가해 행동을 강화하게 된다.

한편, 일부의 도발적인 피해자들은 외면화된 행동 장애를 갖고 있는데, 이들의 공격적이거나 과격적인 행동은 가해자를 흥분시키거나 화나게 하여 폭력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sup>5)</sup> 집단에서 거부되거나 무시되는 아동들의 특성을 Shaffer(1994)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권위주의적이고 강압적으로 자녀들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부모를 가진 경우가 있다. 이런 부모의 자녀들은 비협조적이고 공격적이고 과격적인 행동을 발달시키게 된다고 한다. 둘째, 다른 형제들과 협조하고 타협하는 방법을 경험해 본 동생들보다는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만이가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셋째, 역할수용능력이나 성적이 낮은 경우와 같이 인지

적 능력이 발달하지 못한 아동들은 또래로부터 거부되거나 무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sup>16)</sup> 이와 같은 특성들은 모두 아동 및 청소년들의 부적응적인 행동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피해자들의 내면화된(internalizing) 문제뿐만 아니라 외현화된(externalizing) 행동 장애도 피해와 관련된 주요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후자와 같이 외현화된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는 도발적인 피해자(provocative victim)로 분류되기도 한다.<sup>5)</sup>

한편, 가해학생들의 특성에 대한 국내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은 아이들, 질투심이 많은 아이들, 싸움을 잘하는 아이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은 싸움을 잘하는 아이들이, 그리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질투심이 많은 아이들이 우세하게 나타났다.<sup>11)</sup>

물론, 이상에서 지적된 행동 장애가 피해를 당한 결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행동장애가 원인인지 또는 결과인지를 밝히려는 시도가 있었다.<sup>3)17)18)</sup> Schwartz와 동료들(1993)은, 6세에서 8세 사이의 흙인 소년 6명으로 구성된 30개의 놀이 집단을 구성하고 45분간 지속되는 놀이 과정을 5일 동안 관찰하였다. 이들은 처음에는 서로 모르는 관계였으나, 놀이가 지속되면서 상습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아동들이 나타났다. 상

습적인 피해자들은 자기 주장 능력이 떨어지는 아동들로 놀이와 대화를 자발적으로 시작하지 못하고 동료들의 의견에 순종적으로 따르기만 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Hodges와 동료들(1999)은 초등학교 아동들을 1년간의 종단적으로 연구하여 피해자들의 행동 장애는 원인일 수도 있지만 결과일 수도 있음을 밝혀내었다. 내면화된 그리고 외현화된 행동 장애가 높은 아동들은 1년 후 동료들로부터 더 많은 놀림과 언어적 그리고 신체적 폭력을 당했지만, 동시에 그러한 피해를 당한 아동들은 1년 후의 검사에서 행동 장애도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행동적 장애가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되게 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되면 행동적 장애가 증가하는 순환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려 준다.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이므로 집단따돌림과 관련된 정신병리가 집단따돌림이 원인인지 또는 결과인지 밝히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들을 참고하면, 피해 및 가해 아동들이 보이고 있는 정신병리는 집단따돌림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집단따돌림을 당한 결과가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피해 아동들은 집중의 문제 및 수동적인 특징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특성을 보였는데, 이러한 특성이 집단따돌림의 현상을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하며 또한 반복되는 집단따돌림은 이 아동들이 발달 단계에 적절한 사회관계를 맺는 기회를 박탈하므로 사회적으로 미성숙함과 수동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가해아동의 행동문제는 Olweus가 지적한 가해 아동의 공감능력의 결핍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sup>2)</sup>

마지막으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안을 몇 가지 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 K-PNI는 성별의 구분 없이 시행되었다. 초등학교에서는 학년이 올라 갈수록 아동들은 동성끼리 어울리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동성의 아동들에 대한 또래관계나 집단따돌림에 대한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반면 반대로 이성에 대한 정보의 정확도는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본 유병률 조사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K-PNI에서는 집단 따돌림의 횟수, 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으므로 단 한번의 소외나 언어적 폭력 등 일파적이며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따돌림까지 포함되어 높은 유병률을 보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횟수, 기간 등을 명시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K-PNI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또래지명 방식이 가장 타당한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와 함께 자기보고나 교사의 보고와 비교하여 유병률의 차이를 확인해보는 것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집단 따돌림의 가해자 및 피해자의 정신병리를 알아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으로는 집단따돌림 현상과 관련된 정신병리 문제와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불가능 하였으므로, 추후에는 종단적인 접근 방법을 이용하거나 집단따돌림의 가해자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을 통해 질적 자료를 얻어내는 것도 정신병리의 심층적인 평가에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 1) 박성규(1999) : 왕따의 실태, 원인에서 해결방안까지  
왕따 리포트. 우리교육, pp16-51
- 2) Perry DG, Kusel SJ, Perry LC(1988) :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 Psychol 24 : 807-814
- 3) Hodges EVE, Boivin M, Vitaro F, Bukowski M(1999) : The power of friendship : protection against as escalating cycle of peer victimization? Dev Psychol 35 : 94-101
- 4) Williams K, Chambers M, Logan S, Robinson D(1996) : Association of common health symptoms with bullying in primary school children. BMJ 313 : 17-9
- 5) Mynard H, Joseph S(1997) : Bullying/victim problems and their association with Eysenck's personality dimensions in 8 to 13 years old. Br J Edu Psychol 67 : 51-54
- 6) Olweus D, Bullying at school(1994) : Basic facts and an effective intervention programme. Promot Educ 48 : 27-31
- 7) 김영신, 고윤주, 노주선(2000) : 한국형 또래지명설문지(K-PNI) 개발연구 - 집단따돌림 및 또래 괴롭힘 측정도구 -. 대한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 서울, 대한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 8) 노주선, 고선규, 고윤주, 손석한, 서동향, 김세주, 김영신(2000) : ADS의 한국어판 표준화 연구. 대한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 서울, 대한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 9) DuPaul GJ(1991) : Parent and Teacher Rating AD-HD symptoms : Psychometric properties in community-based sample. J Clin Child Psychol 20 : 245-253

- 10) Goyette CH, Conners CK, Ulrich RF(1978) : Normative data on revised Conners Parent and Teacher Rating Scale. *J Abnorm Psychol* 6 : 221-236
- 11) 노주선, 고윤주, 서동향, 손석한, 김세주, 김영신(2000) : 부모 및 교사용 Conners 척도의 한국어판 표준화 연구. 대한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 서울, 대한 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 12)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1990) : 한국어판 아동행동조사표. 서울, 하나의학사
- 13) Eagan SK, Perry DG(1998) : Does low self-regard invite victimization? *Dev Psychol* 34 : 299-309
- 14) Graham CH, Juvonen J(1998) : Self-blame and peer victimization in middle school : an attributional analysis. *Dev Psychol* 34 : 587-599
- 15) Hodges EV, Malone MJ, Perry DG(1997) : Individual risk and social risk as interacting determinants of victimization in the peer group. *Dev Psychol* 33 : 1032-1039
- 16) Shaffer DR(1994) :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Pacific Grove, CA : Brooks/cole
- 17) Kochenderfer BJ, Ladd GW(1996) : Peer victimization : cause or consequence of school adjustment? *Child Dev* 67 : 1305-1317
- 18) Schwartz D, Dodge KA, Coie JD(1993) : The emergence of chronic peer victimization in boys' play groups. *Child Dev* 64 : 1755-1772

## School Bullying and Related Psychopathology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Young Shin Kim, M.D., M.P.H., Yun-Joo Koh, Ph.D., Joo Sun Noh, M.A.,  
Min Sook Park, M.D., Suk Han Sohn, M.D., Dong Hang Suh, M.D.,  
Se Joo Kim, M.D., Nakkyoung Choi, M.D., Sangeui Hong, M.D.

*Department of Psychiatry, School of Medicine, Hallym University, Seoul*

**Objective :** School bullying, the most prevalent type of school violence, is known to be related to various behavioral, emotional and social problems both in victims and perpetrators.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evalence of school bullying and related psychopathology in a community sampl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Method :** Fourth to 6<sup>th</sup> graders of two randomly selected classes in two elementary schools in Anyang City participated in a cross-sectional study. Study subjects completed Korean-Peer Nominating Inventory(K-PNI). Parents completed Korean-Child Behavior Checklist(K-CBCL), ADHD Rating Scale(ARS) and Conners Scales for parents, and teachers completed ARS and Conners Scales for teachers. Descriptive statistics, multiple linear and logistic regression were performed.

**Results :** A Total of 532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Prevalence of victims, perpetrators, and victim-perpetrators were 48%, 45%, and 30% respectively. Extreme victims and perpetrators of school bullying ranged from 2.1 – 4.1%. Inattention-passivity in teachers' Conners Scale, social immaturity or aggression in K-CBCL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victims and victim-perpetrators, and grade was negatively related to school bullying. Conduct problem in Conners Scale for teachers and emotional instability in K-CBCL, and male gender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perpetrators.

**Conclusion :** School bullying is very common in Korean children of elementary schools. Those who had experienced school bullying, either as victims or as perpetrators, had significantly more psychopathology than their counterparts. To clarify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sychopathology and school bullying, a longitudinal follow-up study is suggested.

**KEY WORDS :** School bullying · Prevalence · Psychopathology · Elementary school.